



백제문화제추진위, 왜 부여에 눌러 앉아 있나

공주시, 순회 약속 이행 · 백제세계유산센터 유치 협조 요청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지난 2007년 3월 공동출자를 통해 재단법인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하면서 추진위 사무실을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지인 공주시와 부여군에 2년을 주기로 순회하며 소재시키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실 공주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2015년 3월 공주시로 이전해야 맞지만, 2013년 2월 부여군으로 이전한 뒤 5년 가까이 눌러 앉아 있는 상태다.

더구나 충남도와 롯데 간 백제문화단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백제문화제추진위 사무실을 이전했어야 했다.

또 롯데 측은 수시로 부여군 백제문화 455 백제문화단지 내에 있는 추진위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만큼 이전에 줄 것을 요구해왔다.

롯데 측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자 지난 4월 연 3000만원의 임대료와 매출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잦은 이사가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추진위 사무실 이전을 최대한 자제해왔던 추진위로서는 롯데 측의 요구 등에 따라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초 합의에 따라 공주시로 이전하면 되지만, 부여군의 반대

가세다.

공주시는 순회 소재 원칙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사무실 무상 제공을 제시했지만, 부여군은 백제문화제의 원조라는 입장 등을 내세워 사무실 이전을 반대하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추진위 사무실 이전을 놓고 머리를 맞췄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시덕 공주시장과 이용우 부여 군수 등은 백제문화제추진위 회의실에서 추진위 사무실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한데 이어 실무자 회의에서조차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공주시는 부여군이 당초 합의를 지키지 않고 추진위 사무

실 이전을 반대한다면 현재 대전 둔산동에 소재한 백제세계유산센터의 공주 이전에 부여군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불교 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백제세계유산센터 유치는 공주, 부여, 익산 모두의 희망사항이다.

백제유적지구가 있는 공주와 부여, 익산 세 곳 중 한곳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커 아직까지 대전에 머물러 있다.

공주시가 이번 백제문화제추진위 사무실 이전 문제와 백제세계유산센터 유치 문제를 연계시킴에 따라 부여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제 공은 부여군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부여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 동구 중앙동 시작2018년 동(洞)연두방문 나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2일 중앙동과 신인동을 시작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동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동(洞)연두방문에 나섰다.

공주 · 세종원에 농협-경매 참여자 A씨, 경매 관련 진실 공방

농협측 "원금 보장 해준다고 한적 없어" VS 경매자 A씨 "수차례 듣고 참여"

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공주 · 세종 원에 농협이 최근 한 경매 건과 관련해 경매자 A씨와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경매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경인 B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주세종원에 농협에서 경매가 있는데 조건이 괜찮다"며 "경매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농협 J과장과 통화에서 "J과장은 경매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은 원금 2억 3500만원과 경매집행비용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J과장에게 원금은 물론 등취특세까지 요구해 달라고 요청 했다는 것.

A씨는 경매 전날 경매로 본인이 낙찰 받으면 은행 측에서 어떻게 원금만 가져갈 수 있는지 J과장에게 묻자 "은행이 낙찰 후 원금 2억 3500만원만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또 A씨는 J과장에게 이자지연 이자까지 다 청구해 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빼달라고 요구하자

농협 측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J과장이 원금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드릴 수 있다. 등취특세는 전무에게 결제할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보고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J과장은 등취특세는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A씨에 답했다. 이후 A씨는 원금부분만 생각하고 경매에 참여 의사를 재차 J과장에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J과장이 세금이 더 나왔다고해서 지점장에게 대전지방 법원에 출장을 가셨으니 파악해 주겠다고 했다.

J과장은 A씨에게 선순위 배당은 6만원 정도밖에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낙찰후 알게된 사실은 3000만원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선순위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공주세종원에 농협은 A씨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줘 경매에 참여 하게 됐다"며 "만약 3000만원의 채납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려만 줬다면 경매에 참여할 일

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경매를 소개 시켜준 B씨에게 농협측에서 전화와 가와 "처음에는 원금 보장으로 A씨와 잘 해보려 했는데 전무가 그냥 진행 하라고 했다며 큰일 났다"고 B씨에게 들었다.

경매 당일 A씨와 J과장은 대전 지방법원에서 만나 A씨는 원금을 양보하지 원금만 책임진다고 하느냐고 물으니 J과장은 농협에서는 원금 보장 부분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 한적이 없다며 논쟁을 벌였다는 것.

본보 취재 결과 공주세종원에 농협 J지점장은 "처음 보고 받을 때 A고객이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하여 안된다고 했고, 그러면 등취특세라도 해달라고 보고를 받아 그것 또한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농협이 경매때 손해를 볼때도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경매가 임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경매를 연기하려 했었다. 그런데 경매 당일 오후 늦게 경매참여자가 나타났기에 경매를 진행하게 됐

다"고 했다.

이러면서 J지점장은 "원금만 청구 하겠다는 내용은 은행측에서 단번에도 말한적이 없다. 경매를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선 순위자 기록은 경매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경매 참여자인 A씨가 농협측에 와서 어 기장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금이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누가 원금 이상을 요구하며 J과장도 원금도 말한 나?고 물으니 J과장은 농협에서는 원금 보장 부분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세종원에 농협과 A씨 주장중 누구의 말이 진실로 밝혀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선기자

2018년 확대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혜택

선택진료 폐지 · 노인외래진료비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김재경)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확대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혜택에 대해 22일 밝혔다.

1월 1일부터 15~50%까지 가산되던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7월부터는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계 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일정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도 대폭 인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희소질환에 한해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단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 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원급 외래 진료와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도 줄어들었다. 총 진료비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500원 부

담, 약국 약제비 1만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해당 금액 초과 시엔 총 비용의 10~30% 부담 순이다.

연 1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치석제거(스케일링)의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조정됐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7월부터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가건강검진제도도 개선됐다.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 10%가 폐지되어 무료로 제공한다. 일반 검진과 생애전환기로 이원화되어 있던 일반건강검진 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질병/증상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또한 그동안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2차 검진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개편 이후 의료기관에서 2차 검진과 치료를 병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차별국가책임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확대된다.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선 간호인력이 4명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병배기자

한밭대 학부등록금 0.6% 인하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2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18학년도 한밭대 학부 등록금은 주간 학생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공학계열 2,359,980원, 인문사회대학 1,996,840원, 경상대학 1,887,450원이 된다.

등록금 인하율은 수업료 인하분에 기존에 결정된 입학금 폐지분을 반영할 경우 0.6%에 달한다.

등록금 인하결정 배경에 대해 한밭대 여호진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회정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입학금 폐지에 이어 입학정원 축소와 물가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봄 MT 여름 머드축제 가을 김축제
겨울 낭만의 대천해수욕장과 함께하는 스케이팅 테마파크장
초코볼 레저관광 영동도시 보령~!

보령시 BORYEONG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 국민의견 받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온·오프라인에서 반부패 업무, 공공·민간부문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상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ople.go.kr)을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에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반부패 경영시스템 정착 방안, ▲공직자·학생들에 대한 청렴교육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고객 70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참여를 요청하고, ‘국민생각함’에 시의성·현실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프라인 상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행정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공직자, 경제계,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종합적 반부패대책에 반영되고 올해 3월에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국민과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참여로 수립된 반부패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반부패대책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의견수렴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반부패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보령시의회 2018년 첫 임시회 개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018년 첫 회이기도 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과·사업소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부의의안건을 의결한다. 첫 날인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8개 부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제2,3차 본회의에서 11개 부서, 8개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25일에는 제1차 상임위원회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대상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20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결음 더! 경청 투어’ 대전서 24일 실시

지역밀착형 ‘좋은 정책’ 발굴... 2018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민주당연구원(원장 김민석)이 전국 순회 경청투어로 오는 24일 오

후2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을 찾는다. 이번 경청투어는 국민·지역·생활 속으로 ‘한결음 더’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밀착형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2018지방선거 공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과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이 함께하는 24일엔 기초발전에 김민석 민주당연구원장 △좌장 강래구 동구지역위원장 △패널발제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체계순 대전 여민회 공동대표, 황은주 전국청년정책네트워

크 모임지기, 박창재 세종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지부장 등이 참여해 여성, 청년, 환경, 지방분권, 교육, 지역경제, 마을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연구원과 17개 시도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경청회는 지난 1월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여섯 번째 대전에서 진행되며 2월 1일 충남 천안 등, 2월 9일 경기도 경청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국민의당 충남도당, 천안의 독립운동가 조병옥 박사 참배



국민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조규신)은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참배하는 국민의당 ‘유명·무명 독립운동가 참배’ 릴레이 행사를 유석 조병옥 박사 생가지에서 1월 22일 세 번째로 진행했다.

이날 오후 12시 국민의당 천안시 을지역(위원장 정중학) 여성위원회는 조옥희 여성위원장, 김주영 상무위원, 이정자 디지털소통위원장 등 41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병천면 용두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유석 조병옥 박사 생가를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국민의당 천안시 을지역 여성위원회가 독립운동가 조병옥 박사의 청렴 정신, 특히 조박사의 생애 및 민주주의 사상 학습을 통한 독립정신과 정치철학을 본받기 위해 실시했다.

천안=채기범기자

오세현 전 부시장,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더 큰 승리로 더 행복한 아산’ 만들겠다



오세현 전 아산시 부시장이 22일, 온양1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온양1동 동사무소는 오전 부시장의 첫 보직(온양온천1동장)을 맡아 업무를 시작한 장소로, 자치분권 구현의 최일선에서 최대한 시민들과 가까이 하는 생활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표출하는 의미에서 출마선언 장소로 택했다는 설명이다. 오전 부시장은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더 큰 승리로 더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아울러 ‘사람을 향하고 생활을 보듬는 시장’을 펼쳐 ‘희망이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50만 아산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자치분권 실현이 지방자치의 완성임을 주창해온 오 전 부시장은 출마선언을 통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전 부시장은 충남도와 중앙부처에서 일찍부터 자치분권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며 이론과 실천 역량을 쌓아온 전문가이다.

오 전 부시장은 아산시의 균형발전과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 편의 극대

화를 위한 생활행정 서비스 실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기반 조성 등을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아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한 장영실과학고 설립과 R&D집적지구 조 조성 등을 추진해나갈 것과 세계 무대를 누빈 미래 인재 육성으로 청년 학생의 꿈을 실현하도록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청년벤처도 단순 창업이 아닌 보육과 성장 벤처 재생까지 케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번의 실패가 좌절이 아닌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또한 기존 노인 무료 목욕 및 이모용서비스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편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효도 종합키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광주기자

대전시선관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

제7회 지방선거,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시선관위 7층 대회의실에서 시위원회 간부 및 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

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지방선

거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투·개표 관리와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중대선거범죄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등이다. 또한 참여·축제·화합이라는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선거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소통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김정환기자

이 권한대행,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 수혜 넓혀야

주간업무회의... 지역 실정 맞춰 발전시킨 시책 개발 주문

이재관 대전광역시청 권한대행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춰 발전시킨 시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체로 지자체 정책이 정부에서 수립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칫 지역실정에 간과해 한계를 맞게 된다”며 “지역현황에 밝은 지자체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파악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예로 이 권한대행은

“최근 널리 전개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경우 자칫 여성우위의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남녀 모두의 의식분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남녀가 결혼 전부터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완된 시책을 마련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정부가 전개하는 정책이 시민에게 잘 전달돼 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계

가정 복지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 많은 정책이 있는데 더러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내용이 시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면 결국 수혜자는 우리 시민이 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전국 지자체와 정부의 주요 정책 우수사례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지난주 정부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된 6월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재난자원의 지자체 공동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영호기자

이희환 의원, 영유아 위한 보육환경개선 앞장 감사패 받아

아이들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공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이희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22일 유성구 어린이집연합회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유성구 어린이집연합회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희환 의원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린

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받은 이희환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을 펼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육동일 교수 “대전발전의 선봉서겠다”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유성을 선거구 조직위원장 위촉장 받아



대전광역시 유성을 선거구 조직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

육동일 교수는 “자유한국당 유성을 선거구 조직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

육동일 교수는 “자유한국당 유성을 선거구 조직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

소감을 밝혔다.

이재관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큰 혼돈과 갈등에 놓여 있다. 우선 우리 국가 사회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체제를 지탱하는 시장경제, 대의민주제 그리고 개인주의가 무분별한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포퓰리즘적 직접참정제 그리고 특정직 집단주의로 무조건 대체하려는 무리한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게다가 대한민국 의 외교, 정치, 경제, 복지, 교육 정책들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생략한 채 설익은 정책들을 중구난방으로 제시했다 다시 취소되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 위태로운 국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북유럽이 아닌 남미로 가고 있다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핵위기와 평창올림픽을 놓고 진행되는 남·북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전은 체제를 넘

어 쇠퇴가 시작되었다. 인구는 4년째 줄었고, 시민 개인소득은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중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구가 늘던 유성구도 작년말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은 앞으로 원도심에 이어 신도심 그리고 유성까지 차례로 공동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전체가 쇠퇴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향후 정책을 본격화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정치제도권내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변화를 적극 추구할 것”이고 “대전발전의 중대なる 전환기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구태연한 혈연·지역연·학연·금연 중심의 선거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반드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검증될 수 있는 정책과 공약 경쟁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더 당과 후보들께도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열악한 환경속 휠체어컬링 선수 발굴·홍보에 앞장”

대전장애인컬링협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40여일(3월 9일~18일)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끝나면 시작하는 동계패럴림픽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투지와 인내의 인간성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계패럴림픽 종목 모두가 흥미진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치열한 두뇌싸움과 기술이 필요한 컬링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스코틀랜드와 캐나다에서만 유행하던 ‘변방의 동계스포츠’ 컬링이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컬링은 중세 스코틀랜드인들이 연못에서 하던 놀이에서 탄생했다. 추운 날씨가 뒷받침해야 하는 스포츠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붕을 덮고 얼음을 얼릴 수만 있다면 해가 쨍쨍한 장소와 날씨에서도 컬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컬링을 즐기는 마니아들이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휠체어 컬링 보급과 훈련에 여념이 없는 단체가 있어 화제다.

대전장애인컬링협회회장 김기선·43가 바로 그곳. 대전장애인컬링협회는 지난 2012년 10월 5일 창립했고, 대전장애인컬링협회 및 대전시 장애인체육회의 정식 가맹단체이다. 현재 이 협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5명과 10명의 선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실은 한밭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있다.

‘휠체어컬링’은 경기규칙은 일반 컬링과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남녀혼성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톤을 손으로 밀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서 스틱을 사용한다.

대전장애인 컬링협회 소속 선수들의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까지다. 선수들은 선천적 장애이거나 사고로 인한 장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컬링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은 비장애인들에 버금간다. 대전에는 휠체어 컬링을 할 수 있는 경기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한 달에 3~4번 휠체어 전용경기장이 있는 대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이전경기장을 이용하고 있다. 전용경기장이 멀리있으니 훈련시간도 부족하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휠체어컬링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6년 1월 취임한 김기선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 회장은 대전토박이로 현재 (주)신진유통 폰세상의 대표이기도 하다.

폰세상은 휴대폰케이스와 악세사리 전문 유통업체로 전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업체다. 평소에도 사업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지만 자신의 차에 선수들을 태우고 이전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훈련을 꼼꼼히 살피고 격려하는 등 갖은

의 컬링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투혼이 제가 더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우리 협회와 휠체어컬링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 및 재정 확대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면서 “특히 대전시민들이 휠체어컬링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휠체어컬링은 메달 획득이 유력한 종목”이라며 “우리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는 대표선수로 선발되지 않았지만 오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표선수로 발탁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전장애인컬링협회와 대전시장애인

없는 선수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대전에 컬링장 설립이 시급한 만큼 관계 기관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병용 대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김기선 회장님의 순수한 휠체어컬링에 대한 열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전장애인컬링협회를 이끄는 힘이 아닌가 싶다”면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장애인컬링협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컬링은 물론 장애인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최종길(55) 대전장애인컬링협회장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 회장은 최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으로 선임됐다. 제4대 대전장애인컬링협회장을 맡은 최종길 부단장은 휠체어컬링의 대중화를 위해 각종 국내대회 및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매 훈련마다 실전과 같이 구슬땀을 흘린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휠체어를 타고 스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도 심하고 자주 넘어지곤 하지만, 이러한 장애는 선수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컬링장에서 동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컬링에 집중하다보면 아픔은 금세 잊고 컬링에 몰입하게 된다.

이제는 선수들끼리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할 정도로 호흡도 척척 맞는다. 그래서인지 대전장애인컬링협회 선수들은 창립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이전에서 열린 전국휠체어컬링대회에서 4강에 올라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기선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큰 불평 없이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우리 선수들

체육회,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들이 육체와 정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휠체어컬링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도 힘쓰겠다”면서 “대전에 컬링장 설립 추진과 함께 휠체어 컬링 선수 육성 후원금과 장비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협회와 휠체어 컬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종길 대한장애인컬링협회장님, 조성호 대전서구의회 의원님과 전병용 대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성호 대전서구의회 의원은 “대전지역에 휠체어컬링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휠체어 컬링 훈련에 여념이

초 완공예정인 의정부컬링센터 건립에도 진두지휘하며 휠체어컬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최종길 회장은 “대전장애인 컬링협회는 김기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돈독한 우정과 단합을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인 지역협회”라며 “앞으로 대전 선수들이 기량을 쌓아가면 많은 선수들이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40여일 남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며 “패럴림픽 성공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산시 일자리 창출 '온힘' 기울여

일자리종합센터 중심으로 구인·구직활동 지원도 한층 강화

서산시가 올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기울인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난 18일 열린 세해 첫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올해 정책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그만큼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실업문제의 해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석유·정밀화학 산업 인력 양성교육 ▲실업자한 번에 일 잡기 ▲제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고교생 Hi School 집 멘토링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및 취업관련 특강을 통한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구직자를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취업 역량과



고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는 중소기업 및 우량기업체의 현장 견학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

을 해결하기 위해 15세부터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위치한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활동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비롯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구인채 발굴 및 구직자 등록 관리 등을 통해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신규발굴과 확대를 공공분야 고용 증대에도 힘을 쏟는다.

이완섭 시장은 "일자리 창출이 성장이며 복지"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청양군 농작물 우량종자 보급에 적극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벼를 비롯한 밭작물의 우량종자 보급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정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확보, 본소를 비롯해 서부 및 동부 지소를 통해 연중 공급하고 있다.

또 부족분은 우량종자 채종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가 자율교관 알선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종자의 경우 올해 공공비축미로 선정된 삼광, 새일미를 비롯해 동진찰, 새누리, 운광, 추청, 친들 총 7품

종에 대해 종자소요량의 50%인 130톤을 확보 보급할 계획이다.

감자와 콩 역시 보급종종 외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품종을 알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을 현장에서 직접 상대하는 지소가 다양한 품종의 우량종자를 공급하는데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연중 어느 때라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벼 대체 작물 재배시 ha당 최대 400만원 지원

홍성군조স্য료·두류(콩)·일반작물 지원·쌀 과잉 문제 해결 기대

홍성군이 눈에 벼 대신 대체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약 20억의 예산을 투자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등 벼 생산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사후적 조치를 취해왔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대상은 17년 쌀 변동작물금지급 대상 논지에서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인(법인)으로, 올해 벼 이외 최소 1,000㎡ 이상 타작물 재배농자 경작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조স্য료, 두류(콩),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일반작물로, 수급이 불

안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의 5가지 품목은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품목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1ha당 조স্য료 400만원, 두류(콩)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등 평균 340만원의 단가를 지원하며, 2017년 타작물 재배는 올해 지원단가의 50%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번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더불어 논 전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해 1ha당 200만원씩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며 쌀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홍성=김정한기자

산림복지진흥원 2018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8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이 지난 20일 대전 서구 문정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지원자 799명 중 총

718명(1급 242명, 2급 476명)이 응시(89.86%)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

을 활용해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날 진흥원에서는 예비 산림치유지도사들을 대상으로 기관 리플릿과 컴퓨터용 짜인판을 나눠주며 지원자들을 응원했다.



아산시보건소 '건강홍보관' 운영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지난 9일부터 2월까지 세해 농업인 실용기술교육과 연계해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며 건강상담과 서비스 요구도 조사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홍보관은 혈압·혈당측정, 흡연 여부 등 건강행태설문조사,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암 검진 홍보 등 다양한 사업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건강홍보관 운영을 통해 세해 금연 신청자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신청자를 상당수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봉 소장은 "이번 건강홍보관에 고혈압, 당뇨병 교실 참여자를 많이 하는 등 주민들이 보건사업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유도해 건강한 도시 아산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본격 운영

공주시 일(job) + 복지 + 취업교육 +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해결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고용과 일자리, 복지업무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업무를 개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공주시번영로 46, 4층과 5층(신관동)에 자리잡고 있다.

당초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구 공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4층에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구 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전 공주고용센터 아래층을 추가임대해 개소하게 됐다.

이 곳에는 공주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여성세로일하기센터 등 4개 기관이 상호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센터 운영 및 복지상담 연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파견해 취업과 복지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부채 및 신용회복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세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발굴·연계를 통해 특성화된 여성일자리를 제공한다.

정광의 기업경제과장은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많은 공주시민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은양중양로타리클럽 건강 검진권 후원

은양중양로타리클럽(회장 김경태)이 지난 19일, 관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인주면 행복마을주민단(단장 정광희)에 건강검진권 2매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된 건강검진권은 관내 비영리인 문제로 인해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대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광희 단장은 "매년 이렇게 관내 저소

득층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검진이 필요한 대상자가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양중양로타리클럽은 지난 11월에 관내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한밭대 통합물관리학과 학생들

‘사랑의 연탄 봉사 활동’ 실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통합물관리학과 학생들이 지난 2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사동 쪽방촌을 찾아 ‘사랑의 연탄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한밭대 통합물관리학과(학과장 유병로 교수)는 학생 20명과 교수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대전 봉사체협 교실(회장 권흥주)과 대사동 동사무소의 협조로 추운 쪽방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성금과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이 봉사활동은 2017년부터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중촌동 지역에서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등에 연탄을 전달했

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정빈 학생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봉사를 통해 우리 마음이 뿌듯해져서 더욱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밭대 통합물관리학과는 2016년 처음 개설된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 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자금 전액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직장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방학기간을 활용해 주기적인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정복기자

겨울 가뭄 비상...2018년 가뭄종합 대책 나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심의·의결 ‘가뭄대응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의 영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내용을 담은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기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현황 정보에 유역별(117개) 가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후예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정적 정보에서 확률 기반의 가뭄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가뭄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

역으로의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해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급수체계를 구축한다.

국지적 가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물 그릇 키우기 등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돌봄(물웅덩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뭄 등 재해예방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용수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물수요가 많은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농업용수 수요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저수율이 낮아 올봄 물 부족이 예상되는 남부지방의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체우기를 실시하고,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추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낮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

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물 자원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공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운문댐(용수전용댐)은 가뭄극복을 위해 건설 중인 비상공급시설을 올해 2월까지 통수하고, 저수율이 낮은 댐*에 대해 저수상황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해 지자체 수원 활용 등 대책을 마련한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댐에 이어 올해부터는 용수전용댐에 대해서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령댐 등 수로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광역시수도 급수체 계조정 사업과 가뭄대비 용수비축 위주의 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광역상수도 인건지역 용수공급 사업 및 나눔지하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의 상습

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광주시 매대미 마을, 인천광역시 소청도 등 지난 10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던 도서·산간지역에는 관정개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 설치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군, 완도군 등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된 지역 또는 공급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 정수장간 비상연계, 지방-광역 상수도 연계,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18년)을 개정해 공업용수 신규 수요 발생 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여 장래 물부족 심화에 대응가능한 수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제도 도입 지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연구자의 발명욕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우수특허 확보에 필수적인 직무발명 제도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여 모범적인 직무발명보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4~6년차 특허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지원,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획득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박봉관기자

아산시, 지방분권개헌 아산회의 출범



아산시는 지난 19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북기왕 아산시장과 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 시민회를 가득 채운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아산회의 출범식을 열고,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활동 계획을 입혔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아산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 ▲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명시할 것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여 보장할 것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

재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 아산회의는 오지석 대한노인회 아산지회장과 박종덕 충무회장이 고문을 맡고, 임병욱 재향군인회장이 상임공동대표, 박준호 자치분권협의회장, 맹주철 이·통장연합회장, 한종태 주민자치연합회장, 손정열 바르게살기연합회장, 최인식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운종 체육회 수석부회장, 이기은 한국예총 아산지회장, 김수영 풀뿌리사업연대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가운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변경된 희귀 질환자 지원 적극 홍보

의료비 지원 기준 폭 확대·탈락된 대상자 대상으로 홍보 강화

당진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폭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탈락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지원과 관련해 기존에는 환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은 합계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한다.

특히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질병·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의 경우, 지적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인 경우 소유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호흡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가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면제 기준도 신선포 소득재산조사 면제자는 기초연급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희귀 질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3,158건, 1억 5,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돼 대상자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개기월식 주제로 공개 관측회’

칠갑산 천문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



칠갑산천문대는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개기월식을 주제로 공개 관측회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청양의 청정하늘에서 보이는 별과 특별한 천문현상인 개기월식 관측을 통해 방학을 맞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도심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우주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개기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상에 놓여 지구의 그림자로 인해 달의 전체 모습이 가려지는 현상으로 달에 도달하는 태양 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해 산란

이 일어나 붉은 달을 볼 수 있다.

이번 공개 관측회는 31일 오후 8시 48분부터 시작되는 개기월식 시간에 맞춰 특별 천체관측 및 천문 강연, 직접 찍어보는 달 사진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기존 야간 관람 인원제한을 없애 오후 8시 이후 입장하는 관람객들은 자유롭게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관측프로그램은 보름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설프로그램도 기존 시간표대로 운영된다.

청양=정상범기자

K-water, 가뭄 대응 비상대책회의



K-water(사장 이학수)는 계속되는 남부지방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2일, K-water 본사대전광역시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사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작년 1월 이후 전국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78% 수준이고 특히, 용수 전용댐 유역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2017 1월 이후 전국 다목적댐 평균 강수량 97.6mm(예년 1,257mm), 용수댐 70.4mm(예년 1,305mm)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권역별 가뭄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가뭄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의 가뭄극복을 위한 금호강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현재 모든 댐에서 최소 필요수량만 공급하면서 최대한 용수를 비축하고 있으며, 각 댐별 실행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며, 충남서부지역은 2017년 3월부터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 상류로 공급(하루 최대 12만m³)하고 있다. 박봉관기자

2018년 1차 충남북부지역 무역실무교육 개최

무협 대전세종충남·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개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경웅)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우)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남북부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차 충남북부지역 무역실무교육’을 공동 개최했다.

2017년 우리 무역은 세계수출순위 6위를 기록하는 등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1조 달러를 돌파했으

며, 이 가운데 충남은 전국 지자체 수출 2위(17 11월 기준)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협회와 함께 수출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무역지식 함양 및 통상환경 대비를 위한 교육을 개설했으며 정원 30명이 조기 마감되는 등 기업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은 ‘2018년 한국무역협회/무협준 주요 사업설명’을 비롯한 무역실무 전반과 e-마켓플레이스 및 검색엔진 활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성공사례 소개 및 시연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협회는 상반기 중 우리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전반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련 문의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T.042-338-1005)로 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색소폰 연주기법 CEO 1년 김정음 고급과정’ 수료식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수료식 및 졸업 발표회



명품색소폰 연주자 양성 사관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평생교육원에서는 21일 작년 4월 3일 개강한 “색소폰 연주기법 CEO 1년 김정음 고급과정”에 대한 수료식 및 졸업 발표회를 가족 및 동호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색소폰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연주기법 향상을 위해 노력 해온 수강생들은 수료증과 공로상, 그리고 지도사 자격증을 받으면서, 그동안 연주기법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지도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심사를 통과한 수

료생들에게는 색소폰 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하여, 전국 어디서나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료식에 이은 졸업 발표회에서는 그 동안 길고 닳은 실력을 뽐내며, 1년만에 일취월장한 자신들의 연주기법 향상에 감격해하기도 하였다. 본 과정에서는 연간 400석 규모의 대형무대에서 총 4회의 발표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원장 장인식은 본 CEO 1년 과정의 수료에 이어 2018. 3월 초 개강을 목표로 5개 부문교석진 조금, 이종우 중/고급과정, 김정음 고급과정, 지도사 양성과정, 리페어 과정 3기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문의전화 :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042-629-6990, H.P.010-5433-8845) 이정복기자

온양3동 복지동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병행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동 만들기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관은 변정섭 통장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31개 마을통장들이 주체가 되어 지난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동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동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담당자가 세대명부를 출력해 전(전)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조사하며 생계곤란이 의심되는 가정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또한, 온양3동은 신청방법 및

내용을 물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주민의 이동이 빈번한 곳에 현수막 게시와 마을안내관 및 경로당 등에 홍보물을 부착해 동절기 위기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반 주민들도 QR코드를 통해 온양3동 맞춤형복지팀 전용휴대전화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발굴된 가정은 행복키가세대명부를 출력해 전(전)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조사하며 생계곤란이 의심되는 가정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철갑산 얼음축제 소방안전 체험장

청양소방서, 직접 체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20일 철갑산 알프스마을 얼음축제장에서 '흥미진진 소방체험장'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법 익히기 ▲경량간막이 탈출 체험 ▲소방캐릭터 영웅이와 사진 찍기 ▲전단지 등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해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선원 감금 인권유린 사범 검거

태안해양경찰서,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선원 Y씨(남, 59세)를 선내에 감금한 선주 A씨(남, 48세)와 선장 B씨(남, 55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검거했다.

어선 소유주 A씨 등은 2017년 11월 22일 23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조업 중 피해자 Y씨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A씨 소유의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태워 항구에 인항, 정박 중 작업소 개소장이 도착할 때 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선원실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의 조사결과 어선 소유주 A씨는 선불금을 받은 피해자가 도망할 것을 염려해 감금했고 어획물운반선 선장 B씨는 소유주 A씨의 지시로 피해자를 감금하는데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소유주 A씨는 해기사 면허없이 총 29회에 걸쳐 기관장 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생 침해 범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민기자

서천소방서, 온열기구 사용 주의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겨울철 추운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더해 건조한 기후, 잦은 온열기구 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난방기구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끊어지는 누전, 온도조절기 이상으로 인한 과전압 등이다.

서천소방서에서는 ▲난방기구열 가연성물질 적재금지 ▲전기장판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 ▲자동 온도 조절기 고장 여부 수시 확인 ▲장시간 사용금지 ▲미사용이외 출시 반드시 전원 차단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서천=김태성기자

신분증 없이 국내선 비행기 탄다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손바닥 정맥·지문' 확인

앞으로 김포, 제주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없이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등 생체인식만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9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바닥 정맥 기술을 이용한 탑승 수속 서비스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컬러벤즈, 신장, 습도, 온도 등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체내 특성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에 우수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지문과 손바닥 정맥을 탑승수속에 활용하면 전용 게이트를 통해 수속을 신속하게 하고 기존에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적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항공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분증 분실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는 여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및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처음 생체정보 등록 시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신분증 없이 전용게이트를 통해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 중 '부당해고'는 지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민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차 국민권익위는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천6백21건('15년12월~'17년11월)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를 지난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 비교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지난 2015년 분석결과* 13년12월~15년11월

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7.7%)은 각각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쳤다.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소폭 증가(10.5%→12.5%)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5.1%→5.6%)는 변동 폭이 미미했다.

월 평균 민원 발생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화기간 월 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 국장은 "18년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 등 논의하고자 마련

경찰청은 1월 20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8년 경찰의 정책 목표인 '민주·민생·인권경찰'을 위한 '민주·민생·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 ▲'함께하는 민주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따뜻한 인권경찰'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눈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8년, 경찰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며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민주·민생·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 ▲'함께하는 민주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따뜻한 인권경찰'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눈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8년, 경찰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며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민주·민생·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 ▲'함께하는 민주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따뜻한 인권경찰'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눈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어 전 지휘부가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올림피아 안전 확보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날 '18년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부에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민주·인권경찰로 거듭날 것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를 주문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워크숍 참가자에게 미국 독립혁명기 사상이 '토머스 페인'이 쓴 '상식, 인권'이란 책을 선물하며, 인권과 상식에 기초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경찰이 되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봉관기자



김홍자 음봉면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

김미자임대장 노고 격려·새로 취임하는 김홍자 대장 축하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은)는 지난 19일, 음봉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봉면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지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김미자 이임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 취임하는 김홍자 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임한 김홍자 대장은 2012년 1월부터 5년 11개월 간 음봉면여성의용소방대에서 평소 어려운 이웃주민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대

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음봉면여성의용소방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는 ▲공포포수어 ▲의용소방대기(旗)인계·인수 ▲이·취임사 및 기관·단체장 축하 등으로 진행됐다.

김홍자 대장은 "음봉면여성의용소방대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사고와 화재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참된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음봉면여성의용소방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부여소방서,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22일 3층 대회의실에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유현근 소방서장을 비롯한 통제단원 31명과 각 센터장 및 현오 상황대원이 참여했으며, 부여군 구암면에 위치한 8층 규모의 복합건축물 1층 주차장 천정에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

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재난 특성을 반영한 중요사항 논의 및 의사결정 ▲현장에 필요한 자원 관리 및 통제단 운영 방안 ▲건물 내부 인명구조 방법 및 다수사상자에 대한 이송방법 등으로 재난 상황의 위험성과 현장 여건변화에 대해 브리핑·시뮬레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부여=김태성기자

대전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곳 적발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단속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1,187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개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분야 33개 ▲수질분야 31개 ▲비산먼지분야 21개, 시는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27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세부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207개소 ▲비정상가동 6개소 ▲무허가 1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 41개소이다.

시는 위반사안별로 ▲조업정지 4개소 ▲사용중지 6개소 ▲폐쇄명령 10개소 ▲개선명령 33개소 ▲경고 26개소 ▲조치이행명령 등 6개소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법면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환경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기술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영호기자

충남 경력단절 여성 규모 8만 8천명, 전국 6위 감소율

2016년 9만 7천명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청남도 2017년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8만 8천명으로 2016년 9만 7천명과 대비하여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제주, 충북, 부산, 인천, 강원도에 이어 6위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22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연구위원이 2018년 시군별 여성일자리 정책방향 설정과 시군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현안과제 수행 분석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A형-시군)

에 대해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군별 경력단절여성 분포는 천안시가 39.1%, 아산시 18.0%, 서산시 11.1%, 당진시 10.8%의 순으로 주로 북부권에 79.0%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령대별 규모는 30대가 49.0%로 가장 높으며, 40대 25.6%, 20대 17.2%, 50대(50~54세) 8.1% 순으로, 학력별로는 고졸이 51.1%로 가장 높고, 대졸이상이 45.2%, 중졸이상이 3.9%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 사유는 개인·

가족관련 사유가 76.0%로 가장 높으며, 육아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15세부터 54세 기혼여성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안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향후 충청남도가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낮추면서도, 현재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요구를 반영한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김정민기자

예산소방서, 겨울철 차량화재 예방법 알리고 나서

차량 내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면 연소확대 및 2차 피해 예방 가능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동차 히터를 오랫동안 켜다가 엔진이 과열되면서 차

량 화재가 발생하는 등 되풀이 되는 겨울철 차량화재를 막기 위한 예방법을 알리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발화지점의 90% 이상이 엔진룸 부분으로, 엔진의 온도가 최고 수백 도까지 올라가 발화원인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주변에 배선도 집중되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엔진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부동액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차량내 배선이 열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해 파복이 벗겨져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적 온도변화가 적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좋다.

전병철 현장대응단장은 "차량은 잘 타는 재질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많으며, 여러 가연물질들이 파이프나 호스를 통해서 유동하고 있다"며 "차량 화재의 경우, 차 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사용방법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초기에 진압해 연소확대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기업 5곳 중 1곳, 올해 블라인드 채용한다”

<사람인>조사결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업무해결능력’(47.8%·복수응답) 1순위

정부가 학력, 신체조건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조건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기업 5곳 중 1곳도 올해 블라인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222개사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7%가 “올해 채용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다는 기업은 9.5%로, 이와 비교하면 11.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블라인드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업무해결능력’(47.8%, 복

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직무적합성’(45.7%), ‘긍정적인 마인드’(37%), ‘끈기와 열정’(37%), ‘도전정신’(26.1%), ‘조직융합성’(23.9%), ‘창의적인 사고’(17.4%), ‘위기관리능력’(13%), ‘회사에 대한 충성심’(10.9%)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는 ‘스펙보다 역량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67.4%,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스펙보다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37%), ‘기존 직원들의 스펙과 업무능력이 비례하지 않아서’(19.6%), ‘스펙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17.4%),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분위기에 따라’(6.5%) 등을 들었

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47.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아, 블라인드 채용 평가 기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선발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43.8%),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채용전문가가 없어서’(26.1%), ‘정량적 스펙으로 평가해야 하는 역량이 있어서’(11.9%), ‘경연진이 원치 않아서’(11.9%) 등이 있었다.

향후 블라인드 채용 여부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222개사) 10곳 중 5곳(47.7%)이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스펙과 역량의 비례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72.1%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공공기관에 비해 일반기업의 경우, 아직은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일부 평가절차가 도입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구직자들도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실무수행능력과 직무적합성을 어렵히 위해서는 직무 관련도를 고려해 경력을 쌓고, 이를 자신의 역량과 연결 지어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공주교육지원청, 지방시설주사 강희수 칭찬직원 선정 칭찬릴레이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22일 칭찬릴레이로 직장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시설주사 강희수를 칭찬직원으로 선정했다.

강희수 주무관은 항상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을 응대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민원인 및 동료 직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칭찬릴레이는 고객 만족 행정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원 간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칭찬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함이다.

칭찬직원 선정은 홈페이지에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거나 청렴하고 친절한 공주교육 이미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유영덕 교육장은 “직원 상호간 칭찬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업무수행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원 각자의 친절과 미소, 청렴한 행위가 공주교육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부평생학습관 만화 캠프 2기 평가회 열려



서부평생 학습관(관장 김갑배)은 1월 19일 ‘겨울방학 만화캠프 2기’ 참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는 그동안 배웠던 ‘장작 캐리터 활용 소품달력, 텀블러, 만화규본’ 전시회와 ‘절집 애니메이션 제작 동영상’ 감상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가회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는 4회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제작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평가회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와 서부평생학습관 웹툰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알차서 주변에 추천하고 있으며, 서산에 이런 웹툰장작체험관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평생학습관 평생학습부(041-661-832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설 명절 떡 만들기’ 특별강좌 운영

아산시 여성회관, 모집정원은 20명·선착순 접수



아산시 여성회관은 오는 2월 9일 가정에서도 쉽게 맛있는 떡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 떡 만들기’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한국음식관광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떡류가공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떡류전문강사를 초빙해 건강에 좋은 호박꽃떡과 현대적으로 떡을 만들어 모양을 갖춘 떡케이크 등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생은 1월 29일부터 여성회관 홈페이지(http://woman.asan.go.kr)에서 인

터넷접수 가능하며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모집정원은 20명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본 강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성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성회관(041-536-8487)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더불어 일자리 연계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잘풀리는 집 미래생활(주) 후원금 1300만원 전달

잘풀리는 집 미래생활(주)(대표이사 변재락)은 22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잘풀리는 집 미래생활(주) 본사에서 조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 본관가정 아동

성인 것으로 대전지역 빈곤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매월 꾸준히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잘풀리는 집 미래생활(주)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조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대전지역 빈곤가정 아동들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승병배기자

유·초등·특수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충남도교육청, 초등교사467명·특수교사 44명 등 총 544명

충남도교육청(교육장 김지철)은 올해 충남교육을 함께 이끌어갈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22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or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 합격자는 모집 분야별로 유치원 교사 33명, 초등교사(장애포함) 467명, 특수교사 44명으로 총 544명이다.

초등교사는 선발예정인원 500명의 93.4%를 충원해 전년 대비(지난해 선발예정인원 630명, 합격 246명) 54.35%p 증가했다.

그동안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교대

학생이 전년 대비 74.4% 증가해 충남교육청 선호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은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한다.

또한 교직의 첫 출발을 돕는 신규교사 연수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하며 수료 후 학교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축하와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신규교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안전점검

아산교육지원청, 초 10교·중 1교 대상 실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시훈)은 겨울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초 10교, 중 1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실시했다.

아산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번 방학 중 77%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초등돌봄교실은 88%가 운영한다. 방학 중 등교학생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귀가지도, 급·간식지도 등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했다.

이시훈 교육장은 “학교 밖이든 안이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겨울 방학 중 소홀할 수 있는 학생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늘푸른학교 문자해득교원 18명 모집

성인문해 중등과정 지도할 문해교원 모집

대전평생학습관(관장 임태수)은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성인문해 중등과정(중학과정, 고등학교 지원과정)을 지도할 문자해득교원 1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학과정의 지원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분야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문자해득교육교원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고등학교 지원과정은 전공분야 교사경력에 있

는 자로서 2018년 3월 1일 퇴직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대전평생학습관 평생교육과(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전늘푸른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초등학교를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 학력인정 중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총 1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정환기자

부여교육지원청 중간관리자 청렴교육 실시

충남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선)은 19일 관내 초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30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새학년 설계를 앞두고 “내가 만드는 세상”을 주제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청정 부여 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부여 인근부대와 협력한 학생병영체험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협의한 후 진행된 청렴특강은,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 및 청렴 마인드 확립과 부여교육지원청의 청렴분위기 확산을 통한 투명한 부여교육을 구현하고자 실시됐다.

박종만 마정호 교감은 “청렴 교육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배려하고 아끼는 역사사지 마음으로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다시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먼저 청렴에 솔선수범하는 마음자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행정실장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교육공공체 직급별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청렴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여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부여=김정환기자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 운영

세종시교육청, 방학 중 양육부담·사교육비가 경감될 것 기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하 세종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 동안 ‘겨울방학 계절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이번 ‘겨울방학 계절학교’는 ▲수영 ▲볼링 ▲댄스 ▲음악놀이 ▲제과제빵 ▲심용음악 ▲운동재활 등의 문화·예술·체육 중

심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다.

세종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교실 공간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강사와 함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꿈과 끼를 키우고 자립능력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부양하는 가정에 방학 중 양육부담 및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정복 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18 학교폭력예방·생활지도 아간 합동 순찰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은 1월 18일, 중·고 생활지도 담당교사, Wee센터 상담교사 등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업무관련자 19명이 2018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생 지원을 위한 아간 합동 순찰의 첫발을 뒀다.

● 동 정 ●●●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23일 오후 2시에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천종호 판사 특강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3일, 오전 10시,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한 '천종호 판사 특강'에 참석.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김석환 홍성군수= 23일 오전 10시 구항면 대상 2018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실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23일 오후 2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충남도내 3개 시 18개 업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조사 결과

최저임금 영향 요금 1000원 인상 과하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식비 매출액 대비 3.7%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식비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도가 도내 3개 시 한·중·분식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5~30%, 평균 22.5%로 파악됐다.

이는 자정면 1그릇이 5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125원이며, 설령당 1그릇이 7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575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반영하면 5000원짜리 자정면 1그릇은 1845원의 인상요인 있고, 7000원짜리 설령당 1그릇은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됐다.

이번 분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1000원 단위의 인상은 과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유급종사자가 없는 상당수 외식업소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3년간 외식비 상승률(15년 1.6%, 16년 2.2%, 17년 2.5%)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년 0.2%, 16년 0.7%, 17년 1.9%)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

유로 일부 외식비가 1000원 단위로 인상되거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000원 단위의 외식비 인상이 예상되는 등 연초부터 서민물가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외식비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합리적 외식비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홍보하고, 지역별 외식업단체와 간담회,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 과다·부당 인상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외식비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논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

세종시, ha당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 28일까지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3,970ha 중 263ha 감축을 목표로 8억9,40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타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거나 법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지원금은 작물별 전환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사료 ha당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다.

다만, 작물별 수급불안정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2월 28일까지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농업축산과(044-300-4322, 432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월 7~9일까지 신청, 제작일이 오래된 순대상자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15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3.5톤 미만에서 최대 770만원(3.5톤 이상)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044-300-4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2018년 386억 투입 환경개선에 박차

홍성군, 생태계 훼손 방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

홍성군은 생태계 훼손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요인 저감을 목표로 올해 환경 분야에 약 386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변화한 생활폐기물 배출환경에 알맞은 정책 마련,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내포신도시 축산 이전, 폐업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지원 재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이 있다.

먼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저감 대책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폐업이 준비되고 있다. 토지 보상법에 의거해 축사이전·폐업 보상 방법을 결정하고 대상 축산 농가와 보상협의를 끝낸 뒤 보상금 지급 및 축사철거를 진행 할 계획이다.

이외 홍성청 공영주차장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와 상담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제거 사업 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사방댐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공중화장실 4개소는 철거하여 환경미관을 개선 한다.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도 예정돼 있고 또한 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을 폐차 후 LPG신차로 교체한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총 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5백만원씩 정액지원되며 오는 3월 공고 및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및 관내 535개소 환경오

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실시로 각종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내실화,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적정관리 등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관리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에도 힘 쓸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녹지계획·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생태계 훼손 방지와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지도 구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색생활 실천 활동 지원, 가족분노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빈번해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에 응할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정환기자

파랑새 유아숲체험원 동절기 프로그램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첫 유아숲체험원 원수산 '파랑새유아숲체험원'에서 도시

에 사는 아이들이 계절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동절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산림청 한 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근, 이하 진흥원)은 '파랑새 유아숲체험원 동절기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1월 23일(화)부터 진흥원 누리집(www.fow.or.kr)에 공고되는 내용에 따라 접수하면 되며, 일정 조율 및 참여기관 배정 후 1월 29일(월)부터 2월 28일(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답답한 건물을 벗어나 숲을 탐험하면서 동물의 흔적을 찾아보고, 곤충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는지 알아보는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파랑새 유아숲체험원은 2017년 9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총 147개 기관과 4500여 명의 유아들이 다녀갔으며,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95.2%가 만족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겨울에도 자연 속에서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예산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848명 모집

예산군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공익활동 모집인원은 848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가능하며, 선발된 어르신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월 30시간 근무 후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신청자들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형태, 참

여경력, 활동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합산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접수기간 내에 각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예산군시니어클럽 등 사업수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어르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근로를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기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

세종시,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저임금인상 여파와 설 명절,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합동지도 및 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농축수산물, 생필품, 개인서비스 등 32개 명절중점관리 품목은 관내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물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가격 부당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인상, 설 명절, 평창 동계올림픽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많다"며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advertisement with logo and contact info (042)538-3030.

Large advertisement for Hankook tires featuring a family running in a park and a tire image. Text includes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and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동정

주요업무 보고회



북기왕 아산시장은 23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

시군구 정책대상 시상식



김홍태 당진시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군구 정책대상 시상식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한상기 태안군수는 23일 오후 2시 군홍헌사무소에서 '2018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

연두순방



이석화 청양군수는 23일 오후 2시 화성면 연두순방을 실시.



온양6동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아산시 온양6동(동장 김원겸)은 19일 온양6동 대회의실에서 온양6동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 장흥석씨가 제9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온양6동장의 주민자치 조례설명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이 병행됐다.

김원겸 온양6동장은 "온양6동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활발한 분과활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청년농업인 육성에 앞장선다”

당진시, 올해 지원규모 총 2억 4000만 원... 신규시책 통해 맞춤형 사업 지원 추진

당진시가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 신규시책으로 청년농업인 맞춤형 영농 조기정착 사업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20일 당진시가 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 당시 영농 정착 시 인력 부족과 최초 기반조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시가 청년들의 영농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의 올해 지원규모는 총 2억 4,000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이 생산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필요한 시설과 기계, 장비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이 만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독립 경영자이

며, 지원 금액은 1인 사업비 1억 원 이내이다. 지원 품목은 제한이 없지만 시는 눈에 타작물 재배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내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조기정착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며 "시법적으로 운영되는 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3명이지만 사업 평가를 거쳐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공직자 마인드 혁신해 군정 신뢰도 up

올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더욱 강화·청렴도제고 총력



태안군이 올 한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 군정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3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시스템 참여도를 높여 공직자의 마인드 혁명성 제고에 나선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은 비위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해 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4년 '태안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대국민 접점 업무 등의 분야에 적용·운영하고 있다. 우선, 군은 올해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실무부서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모니터링해 개선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청렴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 ▲청렴교육 이수 ▲권익의 권고사항 추진 ▲청백-e 시스템 처리율 ▲자기진단 작성 ▲1부서 1과제 청렴실천 등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부서별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성과부서 및 인사부서와 공유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보다 능

동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보다 자율적인 청렴 분위기 확산 및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문자메시지 및 유선을 통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자들이 청렴·부패방지·공직윤리·고객만족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상시 자가학습시스템(SCLS, Self Check Learning System)을 운영, 청렴도를 스스로 체크해보고 진단케 함으로써 청렴의식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직자 친절 교육과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안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단말기 교체

청양군, 부동산 정보 활용도 제고·최신장비로 6대 교체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부동산 정보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한다. 군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에 따라 총 11대 중 5대를 지난해 교체완료 했으며, 올해는 나머지 6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 항공사진, 도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다수의 서류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부동산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간편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장비로 교체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둔포면 이장 퇴임식·신임이장 위촉식 가져



아산시 둔포면(면장 이문영)은 무술년을 맞아 임기가 만료되는 이장들의 퇴임식을 지난 17일 갖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난 19일에는 신임 및 연임이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0명의 이장들이 19일 임기만으로 퇴임하고 11명이 새롭게 임명, 10명은 연임됐다. 신임 이장 11명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면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들의 숙원들을

하루 빨리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문영 둔포면장은 "2017년 한 해 둔포면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고를 다해 주신 이장단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퇴임하신 이장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무술년 새해에 임명되신 이장단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시·면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과 도약하는 Dynamic 둔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는 환영과 당부의 말을 건넸다.

아산=리량주기자

영인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아산시 영인면(면장 이정희)은 지난 19일,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과 함께 새해맞이 대청소로 관내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기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영인면 장용3리에 불명확한 위생상태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어르신 맥을 찾아 장용3리 마을회와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 아산시 자원순환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됐다. 집안 내부의 오래된 쓰레기와 폐품들을 걷어내고 마당과 집주변에 쌓여있던 고물들을 치워 깨끗한 주거환경 제공과 더불어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마을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 이정희 면장은 "새해맞이 대청소

의 일환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뜻 깊은 봉사였다"며, "이를 위해 참여해 주신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과 장용리 마을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영숙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장은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해 봉사해 주신 단원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완 장용3리 이장은 "행복키움추진단원들과 아산시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지이장으로서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고품질 '벼 종자 400톤 확보'

태안군, 삼광벼·새일미벼 등 다량의 종자 확보·보급

태안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품종 보급을 위해 총 400톤의 벼 종자를 확보,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종자은행을 통해 정부보급종 등 고품질의 벼 종자를 확보하고 농가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 대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공공비축 수매 품종인 삼광벼와 새일미벼의 경우 종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다량의 종자를 확보했으며, 관내 벼 재배 면적의 36%에 달하는 간척지 내 재배 농가로부터 인기가 높은 새누리벼 품종에 대해서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1월 9일부터 29일까지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에서 농업인 4천명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실용교육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들의 기술 향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중점 보급 품종인 삼광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여자들에게 '삼광벼 재배력'을 배우하고 실용교육시 품종 활용법을 적극 알리는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영농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종자 확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많았으나 올해 종자준비가 잘 마무리돼 기쁘다"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이제는 마을길 제설작업도 바로 한다

당진시,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102대 추가 보급

당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제설작업이 어려운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의 빠른 제설작업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102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당진에서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가 도입된 시기는 2009년으로, 당시 지역농협에서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송악읍 주민에게 30대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진시에서도 지난 2016년 55대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장비를 확충해 165대를 확보해 운영해 왔지만 장비가 갖춰지지 못한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이번에 3억 원을 투입해 102대를 추가로 보급했다.

당진시는 이번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확충으로 겨울철 폭설에 따른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작업하고, 제설작업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돼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트랙터 운전 봉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봉사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 앞 골목길 눈 치우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논물가두기로 미리 가뭄 대비하세요

대치면,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운동 적극 추진

청양군 대치면(면장 김종용)이 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논물가두기 운동 홍보에 나섰다.

논물 가두기는 물을 가두지 않을 때보다 30% 정도의 농업용수로도 모내기가 가능하며, 병해충을 감소시키고 물에 의한 양분 공급과 땅의 온도조절로 병 생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면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종용 면장은 "지난 해 겪은 가뭄에서 얻은 교훈으로 미리 미리 논물가두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논물가두기의 효용성 홍보로 모내기 이전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구본영 시장 찾아가는 현장 '소통'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0개 읍·면·동 찾아 생생한 주민 목소리 청취



희망담은 부자농촌 만들기 본격화

부여군, 일류미래 농업구현 위한 526억 사업비 투입

부여군은 일류 미래농업을 이끌어가는 첨단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52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에서는 지난 19일 브리핑실에서 16개 읍면 산업팀장 연석회의를 갖고, 2018년도 농정분야 주요시책 사업의 본격적인 영농추진 방향과 부여군 농정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2018년 농정분야의 비전을 '희망담은 부자농촌 일류미래 농업구현'이라고 정한 군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여성농업인 삶의 질 구현, ▲전국 최초의 스마트원에단지 조성, ▲가족전염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부여 축산 실현 등 2018년도 신규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전국 최초 스마트원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후 한 국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반조성을 본격화한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족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 시행을 올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요사업으로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지원(1억7천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5천만원), 논에 타작물재배 생산지원사업(23억18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2억9천만원), 전국 최초의 첨단원에단지육성사업(282억9600만원), 명품원에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43억9600만원) 등이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을 감축하고 타작물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작물재배를 다변화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올해 5만ha재배변경을 목표로 타작물재배 생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농업인 재해극복 및 안정 생산을 위한 4대 보험료 지원사업(25억4천만원), 가족방역 및 축산경쟁력 강화사업(56억3300만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연석회의에서는 농협계통공급을 통한 육묘용 제초제공급, 무허가작사 적법화 추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사업추진의 고충과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농업인과 각종 단체 농정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하여 농정의 효율성 제고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회계연도 통합결산 전문교육 시행

천안시, 결산과 연말정산 작성 요령 등 집중교육 제공

천안시는 2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과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청과 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2월 31일 지난해 회계연도가 마감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근거로 한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결산전 사전 점검할 사항과 결산자료 입력, 추진시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작성기준 방법과 보조금 결산 요령, e회조 지방재정시스템 세출결산 전산입력, 처리방법,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 결산 과정에 대한 안내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시 달라진 소득세법 설명 및 작성방법 설명을 병행해 진행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마감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집대성하는 것으로 시의 살림살이를 확장된 계수로 표시하는 중요한 행정절차다.

통합 결산서를 3월 21일까지 작성해 시장에 보고하고, 시의회 의장이 선임한 5명의 결산감사위원을 통해 4월 중 20일간 결산감사를 추진해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제1차 정례회 시의회승인을 받는다.

이후 재정공시로 천안시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성순 회계과장은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다음연도 재정운영의 환류에 중요한 절차인 만큼,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통합결산에 대한 이해와 결산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홍희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24일 불당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13일까지 30개 읍면동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는 평소 시장 참여 기회가 적었던 지역의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애환과 요구사항 등에 귀를 기울여 복지시책 아이디어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119안전센터, 파출소,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기업체,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도 듣는다. 일선 읍·



면·동 직원들과는 오찬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도 마련한다.

방문일정은 24일 불당동과 백석동을 시작으로 ▲1.25(목) 일봉동·

병명동 ▲1.26(금) 원성2동·신안동·원성1동 ▲1.29(월) 쌍용3동·쌍용1동·쌍용2동 ▲1.30(화) 성정1동·성정2동 ▲2.1(목) 문성동·중앙동이다.

이어서 ▲2.2(금) 부성2동·부성1동 ▲2.5(월) 신방동·청룡동 ▲2.6(화) 성거읍·직산읍 ▲2.7(수) 목천읍·북면 ▲2.8(목) 입장면·성환읍 ▲2.9(금) 수진면·성남면 ▲2.12(월) 병천면·동면 ▲2.13(화) 풍서면·광덕면 순으로 진행된다.

구본영 시장은 "소통행정 기간 동안 시민들이 제안한 소중함의 의견 중 민원처리 사항은 반영 여부와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건의지에 안내하고,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천안=채기범 기자

부여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21.7억 추가 확보

초촌·충화 지방상수도 사업 배수지 2개소 및 관로 485km 추진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현재 충화면과 초촌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당초 211억5천만원에서 121억7천만원을 추가 승인 받아 총사업비 333억2천만원을 2021년까지 투입한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초촌·충화 지방상수도 사업은 이번에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5차분을 준공하고, 2021년까지 배수지 2개소와 관로

485km를 완료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부여읍과 그 외 면지역간 상수도 보급률의 격차를 해소하고 자급보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기존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량지역과 지하수 고갈 지역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

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상수도 확충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통해 유수율 향상 및 예산 절감을 달성하고, 식수원 부족과 수질악화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여군

이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물 보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수도행정 제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물 복지 안전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 일원 노후화된 관로를 정비하고,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상수도 관망을 감시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누수탐사와 복구작업을 실시해 예산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농업인·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계룡시,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촌의 취약·소의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

산물 가격 하락과 증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적용 분야는 지적측량 분야이며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

확정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운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할인 제도도 추진되며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측량 접수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천군 복지재정 누수 막아 투명한 복지 체계 구축 나선다

상하반기·월별 확인조사 실시 등 부정수급자 관리체계 강화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복지재정 누수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관리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확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서천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

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임금근로소득 등 73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월별 확인조사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연금급여 변동자, 취업세 납부자 등의 정보

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변동과 급여액을 재 선정 한다.

군에 따르면 월 2월 중 사회복지실과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정수급 신고함을 설치해 부정수급 여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복지급여 지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처벌규정을

동고동락 논산시 2018 시민 정보화 맞춤형 교육 추진

시민 정보화교육·사이버교육 12월까지 700회차에 걸쳐 운영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2018 시민

정보화 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추진한다.

정보화 교육은 시민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정보화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자체강사 및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정보화강습교육장,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에서 진행한다.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나만의 블로그제작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총 11개 교육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3개 시간대로 편성·운영한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블로그, 페이스북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평소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교육과정을 강화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lms/)를 통

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한다.

박지현 통합조사관리팀장은 "부정수급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우리 지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제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부정수급자 사례 164건을 적발해 6318만2475원을 환수하고 있다.

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반의 경우 자치행정과 전산정보팀 방문 및 전화(041-746-5263)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외국어, IT,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http://cybernonsango.kr) 서비스를 제공,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교육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정보화 배움터가 '평생교육 논산'을 만들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보화교육에 1,486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2017 제12회 도민 IT경진대회'에서 개인·팀 모든 부문 좋은 성적을 거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통정

임시회폐회식



구본영 천안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8회 임시회폐회식에 참석.

개소식



노박래 서천군수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307회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 오전 11시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다함께 돌봄사업사업 송아리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

쌀기탁식



이용우 부여군수는 23일 오전9시 부여군청 집무실에서 열리는 설명절 나눔의 쌀 기탁식에 참석.



논산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소 직원, 금연구역도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103곳으로 당구장 46개소(45%), 체육도장 21개소(17%), 스크린 골프연습장 18개소(17%), 헬스장, 무도장 등이다.

시는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후에는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041-746-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페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계룡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대상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 접종은 매년 받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만 65세 이후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인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폐렴구균은 잠복기가 1~3일로 짧고 갑작스런 고열과 오한, 기침, 흉통, 호흡곤란, 피로 및 쇠약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직접 접촉으로 전파된다.

또 호흡기 질환이나 보니 추운날씨로 환기가 힘든 겨울과 초봄에 잘 발생한다.

동정

읍면동 방문·시민과의 대화



오시덕 공주시장은 23일 오전 10시 이인면, 오후 2시 신관동에서 열리는 2018년 읍면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23일 오전 10시 청라면사무소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 오전 10시 50분 대천5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오후 4시 30분 시장상에서 열리는 재난관리평가 관련 인터뷰, 오후 6시 삼현장포교회에서 열리는 기독교연합회 신년 교례회 참석.

석남동 시민과 대화



이완섭 서산시장은 23일 오전 10시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해미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2시 10분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석남동 시민과 대화에 참석.

새해농업인 인삼약초 실용교육



박동철 금산군수는 23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인삼약초 실용교육에 참석.



공주시 정안면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공주시 정안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동원)는 주민자치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정안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정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 이틀 간에 걸쳐 정안면사무소 일원에서 주민자치바자회를 개최,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그 수익금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인종 정안면장은 "바자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준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은 것인 만큼 추운 겨울을 맞아 더욱 소외감을 느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안면 작은음악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으며, 해마다 바자회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모아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공주=정상범 기자

질 높은 보육서비스 476억 투입

서산시, 기능보강사업·전기안전점검·가정양육수당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서산시가 모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지원사업에 47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전기안전점검, 평가인증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신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의 전기설비 일제점검 및 누전차단기 교체 등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차액보육



료 50%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 중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시간 아이들을 맡길 수

는 시간제 보육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어린이집의 전문성 향상과 부모상담, 가족양육정보제공 등의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종합보육지원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필수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현기자



귀농귀촌인 체계적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돕는다

최근 5년간 매년 92가구·141명 귀농 보령시, 지속 유입 통한 인구증가 견인

보령시가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귀농을 장려하고, 매년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58가구, 704명이 귀농하며, 연 평균 92가구, 141명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는 미산 51명, 웅천 40명, 오천 16명 등 118가구, 163명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 및 유치, 교육지원, 정착 지원으로 구분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지원정책, 창업 상담, 전문지도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상담을 하고, 귀농귀촌연구회 운영을 지원한다. 또 귀농귀촌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 및 도 단위 박람회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농업현장 체험행사

도 운영한다. 교육지원 분야로 귀농인이 선도농업인의 농장실습을 통해 영농기술 습득을 돕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과 신규 농업인의 영농정착 교육을 실시하며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족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농가와 세대별 맞춤형 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이 함께 귀농준비 단계부터 농사체험을 통한 다양한 정보습득 등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귀농선배와 선도농가, 전문지도사로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해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농업창업의 경우 3억 원, 주택구입(신축)은 75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청라면 장현

리 은행마을과 미산면 대농리 못골마을에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면서 귀농인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시범사업(비가림 하우스, 사육시설 등)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개소당 500만 원 이내) ▲창업기술 자문 및 예비창업 실행비 지원 ▲창업농 육성 자금 지원 ▲청년농업인 및 창업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농경지 임차료도 지원한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인구 증가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선행 조건"이라며,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정착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특화작물을 통한 부가어촌, 점조작 강화 등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논에 타작물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금산군, 1월 22~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금산군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은 '2017년 벼를 재배하고 쌀 변동작물 재배를 신청한 논지'에 2018년 벼의 다른 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계획으로 조사료 400만 원/ha, 두류 280만 원/ha, 일반작물 340만 원/ha이고,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개 품목은 제외되며(단, 인삼재배 후작지로서 2017년 벼 재배 논지에 수단그라스 재배는 지원 가능 논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논 타작물 전환목표는 88ha로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논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타작물 식재 후 올 하반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 이행 점검결과에 따라 11월경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벼 재배보다 소득이 높은 타작물 전환을 유도해 농가소득은 물론 쌀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벼 재배 논지 100만 ha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논지 소유자 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농업인이다.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 시 논지 면적, 재배 작물, 신청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금산군이 오는 3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먹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도로교통 방해, 도시미관 저해, 주민안전 위협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근거한 자동차로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군은 이번이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처리예고기간(10일)을 주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하여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발생 원인이 된다"며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량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를 당부했다.

무술년 새해맞이 유구읍 방문

오시덕 공주시장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22일 유구읍을 방문해 200여명의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유구읍 순회방문은 유구읍 관내 기업체 및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기관단체장 환담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이날 유구읍 주민들은 지역 고충 민원으로 유구IC 주변 마을 급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연결, 유구지카 2점유축적 지속적인 지원요망, 탐곡리 지역 조속한 수해복구 요구, 건축폐기물 비산먼지 문제 등 많은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시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다.

오 시장은 "작년 변화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공주가 잡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법고창신(法鼓昌新)의 정신으로 공주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귀농귀촌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주시, 청년 귀농인 육성·집들이 등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은퇴자와 젊은 청년층 귀농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귀농귀촌지원사업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사업 ▲집들이 운영 사업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귀농귀촌인 생활불편사업 등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8세이상 40세미만, 7명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80~100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공모로 추진하는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2개소 4천만원)'은 만 20세이상 40세이하 청년 귀농인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청년층을 정착시켜 앞으로 농촌의 후계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사업(5개소 5천만원)'은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6차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 운영'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업으로 50만원씩 20호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위한 '건축설계비지원사업'은 100만원씩 10호를 지원하게 된다.

귀농인이 농촌 생활 적응과 영농기초 기술 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도 신청을 받는데,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부터 최대 7개월 동안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초보 귀농인에게 8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초보 귀농인 11명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생활불편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소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귀농귀촌인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촌진흥청과 귀농귀촌팀(☎041-840-8848)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금년부터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업이 다양하고 알차게 지원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초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을 발굴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서산시, 30~200만원까지·6~10개월로

서산시가 농업인에게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영농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농업 특성상 소득이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는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농업인들의 '어차피 빚'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농업인들의 생활자금 운용 행태를 분석했고, 무이자인 농업인 월급제 대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농협 일반영농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수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이번엔 농업인 월급제 제도를 대폭 개선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그간 벼를 재배하고 농협과 수매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벼뿐만 아니라 기타 작물 재배 농가는 물론 농협과 신용계약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 기간도 연간 6개월에서 10개월도 확대했고 벼 재배면적에 대한 조건도 없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660-237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경영 및 가계 부담을 덜어주게 될 농업인 월급제의 혜택을 많은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현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20분)



에은이 진섭과 이혼하는 대신 내건 조건으로 인해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된다.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달순(홍아름)은 정리되지 않은 기억에 혼란스러워한다. 홍주(윤다영)는 유재(송원석)와의 약혼을 허락받기 위해 선기(최재성)를 만나 눈물로 호소한다.

케이블 명화

미쓰와이프 (OCN 오후 3시50분)

승소율 100% 잘나가는 싱글 변호사 '이연우'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 본사 발령을 앞두고 잘나가는 변호사.

뉴욕 본사 발령을 앞두고, 연우(임정화)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는 그녀에게 일어나면 안될 사로기는 것.

하지만 제안을 수락한 그녀에게 찾아온 건 지나치게 자상한 남편과 애 둘 딸린 아줌마의 전쟁 같은 일상! 자신과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



다. 대성(임호)은 간사히 상사의 투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 번 집어두었던 제 2공장 부지를 계약하기로 결심하는데...

전생에 웬수들 (MBC 오후 7시 15분)



"그 집에서 투지금이 나올 수 없었다면, 다른 거라도 받아야 겠어요" 태평(한진희)이 투지금 때문에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고아네.

다이하드 2 (채널CGV 오후 8시00분)

맥클레인 형사는 LA에서 날아오는 아내 홀리를 마주하려 나갔다가 주차 위반에 걸려 장모님 차를 견인당하고 쫓겨 빠진 수갑격이 되어 공황 테러를 서서히 시작한다.



어둠이 깔리고 태풍이 불고 눈발까지 휘몰아치며 활주로에 착륙 유도등이 모두 꺼지면서 연방항공국 핫라인을 통해 난데없이 테러리스트 리더 스튜어트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둠이 깔리고 태풍이 불고 눈발까지 휘몰아치며 활주로에 착륙 유도등이 모두 꺼지면서 연방항공국 핫라인을 통해 난데없이 테러리스트 리더 스튜어트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키야라이프 1588-3200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 OCN 5:10 대탈 6:40 2012 9:3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1 12:30 애간장 13:40 빅 히어로 15:50 미쓰와이프 18:30 존 왓슨: 리부트 21:00 애간장 22:00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채널 CGV 3:40 전격의거인 PART2 5:50 미스터앤 미세스 스미스 8:00 코요태어글리 10:00 왓 어 걸 원츠 12:00 언터처블: 1% 의 우정 14:10 걸리버 여행기 15:50 앵그리버드 더 무비 17:50 백 투 더 비기닝 20:00 다이하드 2 22:30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Mnet 5: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3 7:00 M morning 8:00 WANNA ONE GO 9:50 프로듀스101 시즌2 12:00 SURVIVAL MOMOLAND를 찾아서 13:0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00 WANNA ONE GO: ZERO BASE 15:30 tomis 의 방 16:30 Daily Music Tak (SMS) 17:30 프로듀스101 시즌2 19:40 더 마스타 음악의 공존 21:00 Live on M (SMS) 22:00 M COUNTDOWN 23:50 지금 꼭 들어야 할 MUSIC X CURATION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우보드 하이라이트 12:00 모두투어 프로야구 선수 GOLF in GUAM 13:00 <강구스페셜> 2017 네레 호스에게 주니어 선수권8강 14:00 제9회 전국생체육대 정상씨름대회 16:00 2017 알마티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SBS 스포츠 9:00 17-18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대한민국 메달모음 11:00 2017 LG U+컵 3쿠션 미스터스 12:50 17-18 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 14:45 송홍민 골경기 모음 15:00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17:00 17-18 도드람 리그 21:00 2017 샤토르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온스타일 6:00 런드레이 7:00 런드레이 8:00 아담의 팩트폭격 9:40 서울메이트 11:00 뇌섹시대 문제적남자 12:30 내 귀에 캔디 13:10 내 귀에 캔디 16:30 내 귀에 캔디 17:50 내 귀에 캔디 19:10 내 귀에 캔디 20:20 아담의 팩트폭격 21:10 아담의 팩트폭격 22:00 원나잇투드림:역방레이스
YTN 8:00 이슈오늘 10:00 뉴스다워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들의 시사토크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라인업 12:00 재테크, 알아야만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에감 부동산 제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실황 19:00 보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유진의 사구팔구 21:30 대박한국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순교자적 위대한 동물들(2) 12:45 <인스트림 애니멀>가장위험한 동물 TOP 10 13:45 신비로운 세계 보러오세요 14:45 <세계 테마기행>남반 알프스기행, 스위스-1부/2부 16:15 TV 동물농장 18:30 <세계 테마기행>남반 알프스기행, 스위스-3부/4부 20:00 <사상최악의 참가>나카사키원곡
MBC 뮤직 7:40 여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9:10 주간아이돌 10:10 나 혼자 산다 13:30 여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무한도전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9:00 주간아이돌 20:00 나 혼자 산다
애니맥스 6:00 베이블론스 5 7:00 아들은 너무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썬&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영동발발 공순이와 친구들 11:00 유우와 친구들 12:00 텃밭매너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론스 더 베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
J1 재능방송 6:00 고교디노 시즌2 7:00 이아자배달부 동거비 8:00 베이블론스 더 베스트 9:00 파워캐처 원다 part2 10:00 뽀롱뽀롱 뽀로로5 11:00 영동발발 공순이와 친구들 12:00 라바 시즌 13:00 파워레인저 나자프스 14:00 유희왕 ARC-V 15:00 플레이팅 틴스 part2 16:00 치명처럼 시크릿췌췌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베이블론스 더 베스트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대전시티즌, 2018 시즌 주장 오장은 선임·부주장 안상현 선임



2018시즌 대전시티즌 주장에 오장은, 부주장에 안상현이 선임됐다. 이번 시즌, 성남에서 이적해 온 오장은과 안상현은 각각 K리그에서 285경기, 234경기 출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선수이다.

한 자기관리, 리더십으로 경기장안 밖에서 귀감이 되는 선수이다. 대전은 2018시즌 R리그 참가 등을 통해, 재능 있는 신인 선수 육성에 힘을 기울인다.

세종시 원수산 '파랑새유아 숲체험원' 동절기 참가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첫 유아숲체험원인 원수산 '파랑새유아숲체험원'에서 아이들이 계절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동절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전광역시 서구야구협회 2018년 협회장기 리그 모집. 모집기간 11월 17~선착순. 모집팀 토요일 3부·4부 각 15팀, 일요일 3부·4부 각 15팀. 대회방식 14경기-2심제/1기록. 리그개막 토요일 2월 10일, 일요일 2월 11일.



합동군사대학교 2018년 합동기본 정규과정 및 정규특별과정 현충탑 참배 합동군사대학교(이하 합동대)는 지난 22일 조한규(육군 소장) 합동대 총장을 비롯한 교관·교수, '18년 합동기본정규과정 및 정규특별과정 453명이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실시했다.



대전대청라이온스클럽·한국조리사협회 대전지회, 행복나눔 떡국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356-8지구 대전대청라이온스클럽과 한국조리사협회 대전지회와 공동으로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심경정원을 방문하여 행복나눔 떡국봉사를 펼쳤다.



쥬리아스푸드 대표이사(최권희) 100만원 상당 누룽지 전달 쥬리아스푸드 대표이사(최권희)에서 1월 22일 새해를 맞아 누룽지 10박스, 90kg(100만원 상당)을 후원 기탁 관내 경로당(6개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전달할 계획이다.



보문사 불교대학, 취약계층에 후원금 전달 재단법인 선학원 보문사 불교대학(대학장 송은수)은 지난 19일, 아산시사를 방문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아산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보문사 불교대학 동문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운곡축구회, 2018년 안병기원제 열어 청양군 운곡축구회(회장 이종화)는 지난 21일 운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18년 안병기원제를 개최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밝은 세상을 선물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22일 서천 이안과에서 한국중부발전(주)과 함께 하는 '희망의 빛 만들기'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희망의 빛 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 관내 안질환 치료비가 없어 실명 위기에 처한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7명을 대상으로 한국중부발전(주)가 수술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밭대 LINC+사업단 고준빈 총괄팀장

창업 성공 위한 교재 개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사업단) 고준빈 <사진> 총괄팀장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업성공전략'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교재는 지난해 6월부터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용 교재들에 대한 조사와 기존 창업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해 제작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복합 필요성 등이 담긴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창업의 기본준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법까지 배울 수 있는 ▲창업의 성공은 기본을 지키자, 창업전략과 자금조달의 ▲창업의 성공은 실무가 답이다 등 모두 3장으로 구성했다.

한밭대는 이번 교재가 성공이 불확실한 창업 시장에서 대응·차별화 등 전반적으로 창업 성공의 지혜의 서(書)로서 재학생들의 창업과 취업교육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재를 집필한 고준빈 LINC+사업단 총괄팀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밭대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 지식재산정보사업단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특화 인재양성 ▲학생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기술창업 및 연구장비 활용 교육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전문교육 추진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IP 전문인력 지역적 환경 조성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교내 산학협력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기여해왔다.

고 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업성공 전략은 기술개발 및 생산조직화와 상품개발 및 시장조직화의 문제를 창업과정 및 비즈니스 플랜에 녹여내는 작업"이라며 "시대의 흐름과 융복합의 필

요성, 창업의 성공 실무 등 다양한 경험이 녹여진 교재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질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밭대는 2004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2012년부터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17년 4월 지역 최대 규모인 2222억 원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정복기자

서산시 부춘동 83세 최고령 최장수 통장 '화제'



자기 일보다 봉사라면 밭 벗고 나설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령(83세) 최장수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서산시 부춘동 12동 통장으로 20년간 주민을 위해 봉사를 마다 않은 임낙수 통장이다.

임 통장은 지난 1999년 우체국을 퇴직하고 지금까지 통장과 노인회장을 겸임하며 주민과 노인회 일을 도맡아 봉사를 하고 있다.

임 할아버지의 이번 통장 임기는 1월 26일 끝나지만 주민들의 권유로 또다시 3년을 주민을 위해 통장을 맡게 됐다.

임 통장은 건강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나보다 남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음으로 하는 봉사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전했다.

서산=김정환 기자

대치면 농촌지도자회, 연시 총회 개최

농사짓기 좋은 활기찬 대치면



청양군 대치면 농촌지도자회(회장 임광빈)는 22일 면사무소에서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층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축사 소독시기와 예방백신 적기 접종 등 안정된 축산농가 조성에 협력하고, 대치면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 전수, 농기계 지원 등으로 안정적 정착을 돕자고 의견을 모았다.

임광빈 회장은 "무술년 한해 회원 모두의 화합 속에서 풍년농사를

이루길 기원한다"며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각종 재배법, 영농기술을 전수시켜 영농준비를 육성하는데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김종용 대치면장은 "농촌지도자회의 영농 학습과 교육에 적극적인 모습에 대치면 농업 발전의 미래가 밝다"면서 "귀농인들의 영농정착에도 앞장서 도움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모아남성컷트, 온양5동과 협약체결

복지서비스 실현 위한 행복키움 후원 협약



아산시 용화동에 소재한 모아남성컷트(대표 이윤경)가 지난 19일,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공동단장 심흥섭, 강연식과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행복키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모아남성컷트는 이번 협약으로 1년간 매월 3만원의 후원금 지원을 하게 되며 조성된 기금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세대의 정기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윤경 대표는 "평소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보았다.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행복한 온양5동 만

들기와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보답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직접 봉사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협약을 통한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흥섭, 강연식 공동단장은 "행복키움 협약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 사업의 밑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온양5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러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조성된 기금이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랑기자



엠비지그룹, 베트남 법인 사무소 개소

엠비지그룹(회장 임동표)은 22일 11시(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의 중심인 뎡빈초이거리의 GMA빌딩 7층에서 베트남 법인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엠비지그룹 임동표 회장, 장중수 대표이사, 오노균 상임부회장, 한재수 법인장, 한유진 부회장, 최병길 사장, Mai BORNA 대표 등과 엠비지그룹 고위급 임원

들이 다수 참석했다.

임동표 회장은 베트남 법인 사무소 개소에 따른 인사말에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니켈 법인 사무소 개소에 이어 오늘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를 열어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하고 "모든 임직원이 협력하여 1억불 수출 달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대전농협 고향주부모임, 2018 정기이사회

2018년도 봉사활동과 농산물소비촉진 등 사업계획 수립

농협대전지역본부가 육성하는 소비자단체인 고향주부모임 대전시지회는 22일 2018년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고향주부모임 대전시지회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 활력화,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소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각종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는 농산물 소비촉진활동과 영농지원활동, 매주 급식소 봉사활동, 국립대전현충원 묘역봉사활동, 취약가구 반찬 및 가사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고향주부모임 대전시지회 박종근 회장은 지난해 농촌 활력화와 농산물 소비촉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전용석 본부장은 "고향주부모임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여성권의 신장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과 농업가치 헌법변역 1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고향주부모임이 지역사회의 대표 여성단체로 많은 활동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기고

올 최저임금 이후 소상공인 지원, 보완대책 절실



이교식 아산 시정연구원 원장

2018년 연초 아산의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올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추가부담 인건비와 관련비용 부담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이로 인해 고용인과 근로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오히려 취업의 문이 좁아져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시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고용주인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지원자금 최대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4대보험인, 의료, 연금, 고용,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야 하며 이 또한 고용주(1/2부담)의 추가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자와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주 65시간에서 52시간 근무)과 상여금 지급 중지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최저 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별 도시/농·어촌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 농민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도시의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업종별(제조업/서비스업)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 국가 산업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는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에 따른 기업의 경제규모와 성장률, 업종조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과 근로자들간의 갈등, 청년들의 일자리 축소,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중대한 악영향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발생될 수도 있다

이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국민적 화합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이 절실함 요구된다.

한편,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아산지역 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침체를 막고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아산시가 한시적(2020년까지)으로 추가 보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아산 영세소상공인들은 ① 인건비인상에 따른 운영부담, ②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기회 상실, ③ 대출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 ④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2018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연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구 2만 8천명의 소도시 화천군은 행사기간 이틀만에 관광객 24만명이 넘었으며 작년에는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으로 지역상인과 군민들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문화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우리 아산시도 화천군을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 아산의 많은 관광자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아산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기고

국민 중심의 국가로 가는 길



권영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우리 사회는 고도의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삶의 모든 방면은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창조적 노력과 자기표현의 욕구를 억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혁신적인 사회를 새롭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바탕을 인문학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인간 존재의 방식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문화의 기반을 이룬다. 인문학은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전체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인문학의 비좁던 통로는 이미 넓어졌으며, 인간의 일상적 삶에 보이지 않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인문학이 인간 삶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학문이라

고 해서 인간의 현실과 개개인의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그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 활동은 하나의 완성된 실체로서 입증되기 어렵고, 객관적 결과로서 논증될 수도 없다. 인간 정신은 어떤 조건으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며 무한의 가능성과 힘을 가진 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오랫동안 그 학문적 영역의 독자성을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문학 자체의 학문적 존립 기반이 위태롭다는 진단이 자주 제기된 바 있다. 인문계 대졸자들이 대부분 청년실업자로 전락한다는 우울한 뉴스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문학은 한동안 인간의 사회적 경험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대학의 연구실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인문학은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중요로운 삶을 위해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데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문학이 인간의 본질과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나 그 제도의 성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점을 식별해야 한다. 인간의 존재 문제가 사회와 연관되어 다루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태어나 그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며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과 가치를 타인과 함께 실현해간다. 이러한 자기실현의 장소가 사회인 셈이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회 속에서 삶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전 과정은 문화라는 큰 틀에서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모두 포괄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문화라는 개념이 인간의 삶 자체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는 인간이 역사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삶의 방식 전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가치를 형성하는 총체적 산물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를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규정할 경우 그것은 어김없이 가치문제에 대한 판단과 부딪치게 되어 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화현상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에 대한 긍정도 있지만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문화 현상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비롯한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은 새로운 인식의 눈을 뜨게 만들며 새로운 인식의 눈이 생겨야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인문학은 인간정신의 핵심적 동인으로서의 자기비판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의 삶과 그 산물로서 문화의 구성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밝히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문학은 언제나 문화적 현상과 그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향한다. 이것은 문헌이나 역사 또는 철학 등을 통틀어 문화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문학의 내재적 힘을 말한다. 문화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인간의 삶이 라면, 삶의 인간다움을 기능케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산업화 과정을 겪고 정치 사회적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거 있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정신이 폭넓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의 주체성, 다양성, 개방성, 창의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강조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면서 그 의미가 심장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도 여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중심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 중심의 정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각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다름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되고 모든 계층이 인간의 삶의 참다운 가치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바로 '국민 중심의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대전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난해 보다 1억5000만 원 증액된 2억3250만 원의 국·시비 예산 확보

대전광역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지난해 보

다 1억5000만 원 증액된 2억3250만 원의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자치구를 통해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시설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등이다.

이런 사업은 매년 반복해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하는 등 지구 노력에 있는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며, 희망

하는 농가는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예방시설 확대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사설

건보적용 확대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3인 병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경우 이들 상급병실 보험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 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협의하며 가다듬고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입원료(6인실 기준 5만원 가량)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의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한테서 받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 병실이 부족할 경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턴 2~3인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찮았다.

2~3인실이 급여화되고 본인 부담률이 40% 선에서 정해지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입원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는 천차만별인데, 2인실은 20만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25만원에서 최저가 6만원까지 차이가 크게 난다.

3인실도 10만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16만원에서 최저가 5만원까지 격차가 크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서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락한 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가상화폐 '대책전 매도' 금감원 직원뿐일까

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세차익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본인은 대책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직무연관성을 부인하지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공개 정보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한 와중에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금감원 직원이 오히려 사리사욕 채우기에 비뚤었으니 여론이 고을 리 없다. 정부가 작전세력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금감원 직원만 가상화폐에 손을 댔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훗날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내부거래 관계는 제 가 아는 한 공무원 한두 명의 시레가 있다"며 "공무원에게 투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외에 공무원도 가상화폐 투기에 가담했다는 고백이다. 시중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누리꾼들이 금감원은 물론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던 법무부

직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가짜이나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선으로 비판이 쏟아지는데 감사 감독의 주체들이 앞장서 일탈행위를 했으니 정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현실이 이런 마당이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들 투자자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쉽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은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자로 만든다는 비난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투기를 막되 피해는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만신창이가 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일탈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들에게는 엄격하고 공무원에게는 관대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중구난방인 가상화폐 관련 대책도 컨트론타워인 총리실을 중심으로 조율된 형태로 발표돼야 한다. 일관되고 투명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때 가상화폐 혼란은 비로소 사그라질 수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뉴 아이디어 공모' 추진

충남도, 우수 운영사례 시상·사업추진 방침 설명 등 진행



충남장애인체육회장 안희정(가운데)이 우수 운영사례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충남장애인체육회(회장 안희정)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안사업인 '뉴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19일 도청 문화회관에서 '2018년 생활체육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뉴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비롯한 2018년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 도 가맹단체, 시군 교육

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도내 장애인단체·기관·복지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운영사례 시상 및 2018년 사업추진 방침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신규 추진 사업으로 뉴 아이디어 공모사업, 장애인체육대회, 생활체육사업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뉴 아이디어 공모는 일반적인 생활체육교육실 프로그램에

서 탈피해 시군의 지형 및 문화적 특색이 가미된 '지역 특화 스포츠 사업'이나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순회지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업이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재능기부, 소외계층, 대학생봉사단, 프로그래밍 등과 연계한 사업 등 도내 시군 지부 및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올해 2~3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7년 생활체육지원사업 우수 운영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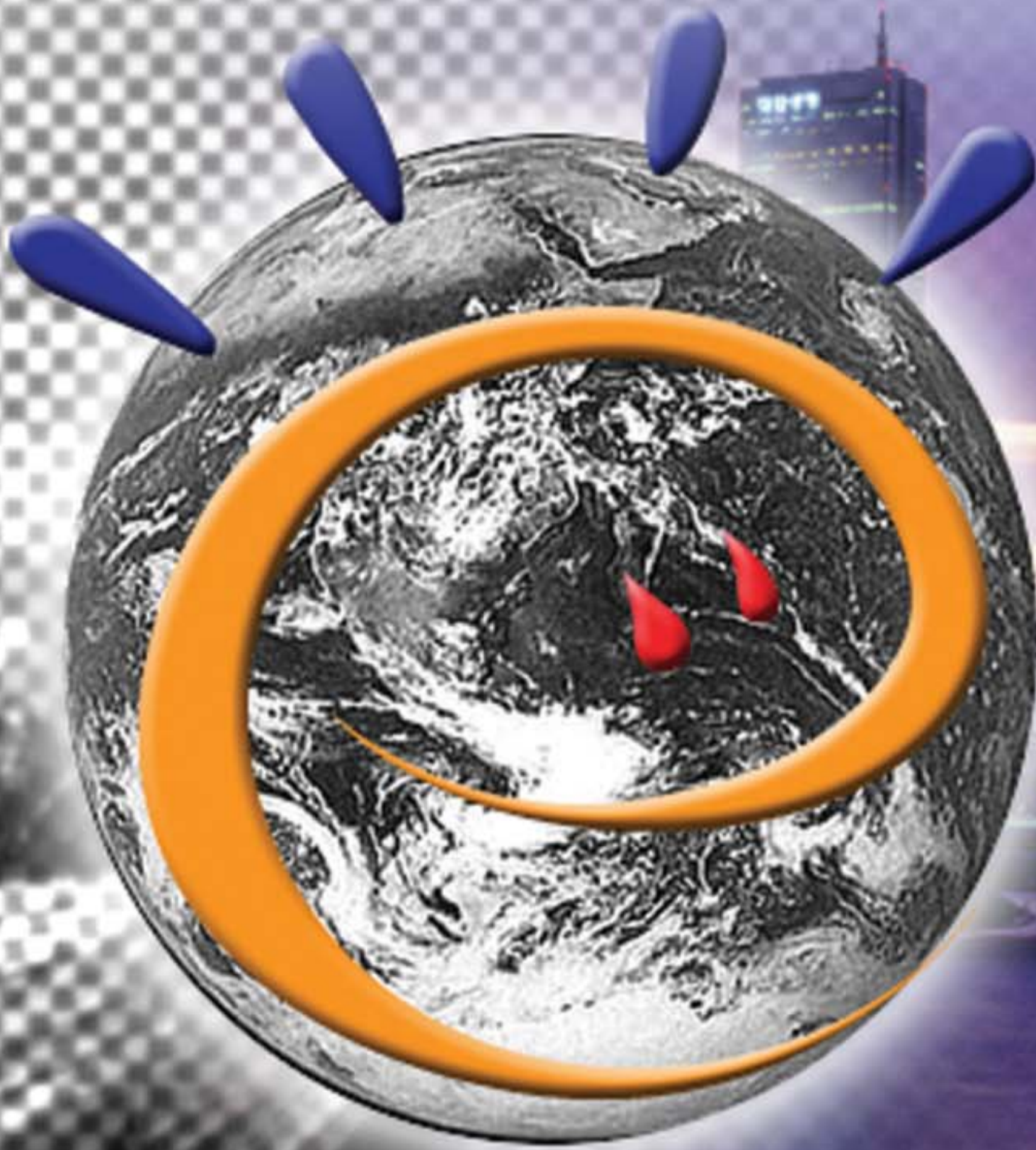
수상자는 △장애정소년교실 부문 최우수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우수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육실 부문 최우수 충남농어인협회 천안시지회, 우수 아산시장애인체육회가 각각 선정됐다. 또 △봉호회 지원 부문 최우수 홍성군장애인체육회, 우수 충남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지도자배치 및 교육 부문 최우수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우수 부여군 최수만 지도자가 수상했다. 김정환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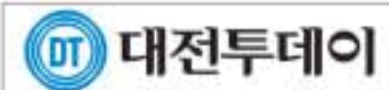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Daedae Today,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후 원 |

